

광주마라톤클럽 회원들이 전한 보스턴마라톤 테러 긴박했던 순간

골인지점 300m 앞두고 ‘광! 광!’

해외대회 첫 도전한 광주 4인
동료 안전 확인 하고 안심
순수 스포츠대회 테러 없어야



지난 16일(한국시각) 보스턴 마라톤대회 출발 전 스타트 라인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한국인 참가자들. 광주에서 출전한 박경오(앞줄 오른쪽 끝), 오도관(2번 번째), 김광용(둘째줄 오른쪽 끝), 문이복(3번 번째)씨. <광주마라톤클럽 제공>

“골인지점을 불과 300여m 앞두고 있었는데 두 차례의 폭발음과 하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나중에야 폭탄 테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6일(한국시각)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던 김광용(56) 남구청 의회사무국 의전계장은 “사고발생 직후 경찰관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접근을 막고, 경찰차와 응급차량 20~30여대가 몰려왔다”며 “사고발생 1시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동료들과 만나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해 다행이다”고 긴박했던 사고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먼저 골인해 일행을 기다리던 박경오(55)씨 역시 “3시간 45분 기록으로 완주한 후 팔겨놓은 물품을 찾아 옷을 갈아입은 후 골인지점 뒤쪽 600~700m 거리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외대회에서 무사히 완주해 기쁜 마음이었다”면서 “골인한지 40여분이 지난 때 갑자기 전방에서 ‘광! 터지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폭탄소리인 줄 알았다. 기다리던 사람이 너무 많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직접

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폭탄 테러를 겪은 광주 마라톤 4명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마라톤러는 광주마라톤 클럽(명예회장 조용석) 박경오·문이복·김광용·오도관 씨 등 4명. 사고 당시 박경오, 오도관 씨는 이미 골인한 상태였고 김광용씨는 300m, 문이복씨는 1km를 남겨둔 상태였다.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수십~수백차례 풀코스를 완주한 이들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기로 의기투합하고 12일 미국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경오씨는 “지금까지 풀코스 148회를 완주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국내 대회는 대부분 참가한 셈이다. 그래서 해외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테러 사태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이념을 뛰어넘은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대회인데 어떤 이유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해 죽고, 부상당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테러로 인한 사상자는 17일 현재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80명을 넘어섰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 부족하다

미디어데이 행사, 준비상황 보고·시설물 공개... 시, 성공개최 최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 3일을 앞둔 17일 순천 박람회장에서 150여명의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막바지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오후에는 세계정원과 참여정원 등 주 박람회장과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등 박람회장의 주요 시설을 공개했다.
주 박람회장 출입구인 ‘지구동문’에서는 박람회 관계자들이 개막이후 집중적으로 몰릴 관람객들에 대비해 매표와 입·출입구 점검을 실시했고, 호수정원인 잔디광장에선 19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의 성공을 위해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었다.
관람객들이 이동하는 길가에는 빨강·노랑 등 형형색색의 튜립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박람회장 곳곳에선 아직도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참석 언론인들은 지구촌 14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은 ‘꿈의 다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킬러(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원박람회의 핵심은 정원인데, 세계 각국의 ‘전통정원’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에 의한 ‘테마정원’, 국내의 자치단체 및 기업이 참여한 ‘참여정원’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현재 박람회장은 23개국 83개의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콘텐츠도 부족했다. 조직위의 설명처럼 정성을 들여 조성했다는 일본정원의 경우 일본 전통정원이란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고 울타리 나무는 일부 말라죽어 관리부실도 노출했다.
바오밥나무 등 희귀 식물을 전시한 실내정원은 관리나 준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았다.
박람회장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티켓 예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위는 16일 현재 입장권 판매에 예매 목표인 80만장을 넘어 103만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박람회 전 기간(6개월) 관람이 가능한 시민권 비증이 전체 판매수량의 5%를 넘어 관람객 400만명 돌파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막이후에는 주차장에서 단체 티켓 예매가 가능하도록 대표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本社人事
▲洪晶淵: 동부추재본부 순천주재 부국장 (4월 18일자)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5강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영화도시 부산” 성공비결은 자율성

창설 후 15년간 위원장 맡아
문화전당 콘텐츠 중요성 강조



“한번 해보겠다는 오기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길을 뚫고 나가면 성취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시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다섯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동호(77)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영화는 나의 꿈” 주제의 특강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 성공비결을 담담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맨손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영화제를 창설하고 15년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아 부산을 ‘영화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기도 하다.
그가 영화제와 인연을 맺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친구들은 “패가망신할 일 있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도전하고픈 생각이 먼저 들어 선택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것은 약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여워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데는 자신 있었죠.”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창설 당시 부산의 문화도양은 척박했다. 지역 문화·인문계에서는 ‘문화 불모지’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다. 심지어 국제영화제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 학생들을 동원해 행사장을 채워야 했다. 기업가에게 손을 벌리고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은 순전히 그의 몫이었다.
그는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전략과 정치적 중립, 자율성을 꼽았다.
“당시 흥영영화제는 20년, 도쿄 영화제는 10년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젊은 감독들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권 젊은 감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영화제에서 선보이자 해외에서 즉각 반응이 왔죠.”
그는 철저하게 영화제를 ‘정치 무중립’로 만들었다. 그가 영화제집행위원장을 맡는 동안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어느 누구에게도 영화제 개막식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정치영향을 받게 되면 영화제를 자율적으로 꾸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지난 16일 광주시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려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간섭이 없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타지역 영화제가 휘청거리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의 지나친 간섭 때문입니다. 영화제를 중립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정치인들을 막아냈습니다.
강연을 마친 김 위원장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1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그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아시아 관람객을 끌어 모으려면 그만큼 콘텐츠(전시·공연 등 운영프로그램)가 있어야 한다”며 “문화전당 건물을 지어 놓고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라며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동호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1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7급 주사보를 거쳐 차관에 올랐다. 예술의전당 사장, 공연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맡아 영화계와 인연을 맺은 뒤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고 15년 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끌어올렸다. 최근 단편영화 ‘주리’로 감독으로 데뷔했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주최인정 ● 고대주거장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대원시업의 의료광고심의필 제(80)130-증-26호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